

광주일보 선정 2008년 광주·전남 10대 뉴스



18대 총선 무소속 돌풍

지난 18대 총선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전체 20개 의석의 20%인 4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운태(광주 남구)·박지원(목포)·김영록(해남·진도·완도)·이윤석(무안·신안) 후보는 민주당의 아성을 깨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민주당 탓발인 광주·전남에서 무소속이 선전한 것은 일부 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공천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당선 이후 박지원·김영록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했고 이윤석 의원도 민주당의 복당 논의가 진행중이다.



정부 제동 J프로젝트·F1 지연

전남도는 영암과 해남 일대 87.92㎢(2천660만 평)를 기업도시로 개발한다는 J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12월 6·7개발대상 구구 가운데 3곳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1년이 넘도록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꼽히는 F1국제 자동차대회 역시 사업비 3천4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P)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F1대회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U대회 유치 실패…재도전

광주시가 유치에 나섰던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개최지가 지난 5월31일 러시아 카잔으로 결정되면서 국제 도시로 도약하려는 미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2015년 U대회 재도전과 관련, 치열한 찬·반 논란이 펼쳐지는 등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시는 지난 9월22일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재도전을 선언, 지난 12일 정부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시는 정부로부터 유치활동 지원금 18억원을 확보하고 유치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 유치전에 돌입했다.



화순 출신 이용대 올림픽 배드민턴 금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화순 출신 이용대(20·삼성전기)는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거머 쥐었다. 베이징 입성 당시부터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인기몰이를 한 이용대는 경기 직후 날린 윙크 세리머니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국민 남동생'으로 각광받았다. 20살 어린나이지만 차분한 경기 진행과 타고 난 감각으로 한국 배드민턴을 이끌며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한 이용대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 출신 첫 우주인 이소연씨 우주에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30·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사는 지난 4월 8일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 우주를 다녀왔다. 이 박사는 4월 19일까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물면서 18가지의 우주과학 실험을 완수했다. 이 박사가 무사히 귀환하면서 한국은 세계 36번째 우주인 배출 국가가 됐으며, 이 박사는 49번째 여성 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은 첫 우주인 배출에 이어 내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과학기술위성을 우리 발사체(KSLV-1)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린다.



광주비엔날레 세계적 미술축제로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가 국내외 미술계의 호평 속에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에는 36개국에서 127명의 작가가 참여해 실현성 강한 작품 550여점을 선보였다.

유료 관람객은 지난 2006 광주비엔날레(41만6천591명)에 비해 감소한 36만여명에 그쳤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유료 관람객만 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는 평을 받았다. 또 유인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비엔날레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다.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 '첫 삽'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핵심 기반시설이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이 지난 6월10일 열린 것을 계기로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문화전당은 총 7천1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옛 전남도청 일원 3만5천746평 부지에 연면적 4만3천172평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1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24일 '도청원형 보존을 위한 공대위'가 문화전당 부지 옛 도청 별관 철거 반대 농성에 돌입, 철거·보존 논란의 장기화로 전당 공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지하철 1호선 2구간 개통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상무역~옥동 차량기지, 8.14km)이 착공 7년 9개월 만인 지난 4월11일 개통됐다. 지난 96년 첫삽을 뜯은 도시철도 1호선 1구간(상무역~용산차량기지, 11.96km) 공사 기간 까지 합할 경우 전구간 공사에는 13년이 소요됐다. 1호선 완전 개통에 따라 교통 혼잡비용 절감은 물론 2호선이 광산구까지 연장됨에 따라 구 도심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2구간 개통과 함께 송정리역 지하 대합실과 국철 송정리역 대합실 사이에 에스컬레이터 2대가 설치되는 등 주변 교통 인프라도 크게 확충됐다.



조선대 로스쿨 탈락

조선대가 수백억원을 들여 준비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에 실패하면서 지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역민들은 로스쿨 설치 대학으로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가 유일하고, 전북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 두 곳에 설치 인가가 난 것을 두고 광주·전남지역 법조계 인적 네트워크 위축과 호남권 법조 중심이라는 광주의 상징적 의미 상실을 우려했다. 특히 윤승용 전 청와대 공보수석이 '원광대가 인기받도록 힘을 썼다'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후 조선대는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호성씨 서울 마포 네 모녀 살인사건

프로야구 인기스타 이호성씨의 '서울 마포 네 모녀 살인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해태 타이거스 간판 타자로 명성을 날렸던 그의 업적적 살인극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부 팬들은 스포츠 스타의 몰락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네 모녀가 살해된 지 21일 만에 실종자들은 이씨의 고향인 화순의 한 공동묘지에서, 이씨는 한강에서 각각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충격적인 비극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독 범행인지, 우발적 살인극인지 등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미스터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